

‘농약안전성 세미나’를 다녀와서

#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불안 해소해 줘야

최근 작물보호제에 대한 소비자교육과 연구시설 및 제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는 개발과정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농산물 중 잔류농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게 되었고 작물보호제에 대한 인식을 다소 새롭게 하게 되었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식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만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이런 즈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작물보호제의 과다사용,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해성 논란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현실이기도 하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트의 친환경농산물 코너 면적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아도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쉽게 엿볼 수 있다. 누가 뭐래도 현대인의 소비패턴은 웰빙(참살이)이다. 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산물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는 농약의 잔류를 염두에 두는 경향이 많다. 사실 소비자입장에서 있는 본인도 각종 매체의 보도를 통해 단편적으로 얻은 농약 관련 지식으로 인해 농약의 위험성, 위해성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FTA에 따른 무차별

적 농산물 시장개방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간혹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의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당국의 발표를 접할 때마다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막연한 불안감이 상존해 왔다.

이러던 중 최근 작물보호제에 대한 몇 차례의 소비자교육과 연구시설 및 제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는 적지 않은 인식의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작물보호제의 개발과정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농산물 중 잔류농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게 되었고 작물보호제가 종자, 비료산업과 더불어 참으로 중요한 산업임을 알게 되어 작물보호제에 대한 인식을 다소 새롭게 하게 되었다.

국내 곡물자급률이 28%에 머물고 있는데다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농산물의 부족, 곡물 투기 등으로 세계 각국이 식량을 안보차원에서 얼마나 소중한 다루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먹

거리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또한 농업의 규모화에서 오는 각종 병해충 및 잡초 방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물보호제의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 농약의 안전성과 위해성, 파다사용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작물보호제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작물보호제가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농자재이냐 이에 그쳐서도 안 될 것이다. 농업인들은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및 잔류농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에 알맞은 제품선택과 용도, 적정량 사용, 안전한 사용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래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작물보호제 자체의 안전성은 물론이지만 올바른 사용법이 지켜졌을 때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담보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관계당국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이다. 지속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잔류농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작물보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들의 불신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관련당국은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생산을 위해 농약안전성 교육과 안전사용 실천을 철저히 지도, 감독함으로써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친환경농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농업정책이 환경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기술에 있어 더욱 환경 친화적으로 보급되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즈음 작물보호제 업계에서는 약효에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좀더 독성이 낮고 잔류기간이 짧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작물보호제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것이 곧 업계를 위하여 농업 환경 및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일 것이다. ♪



김 옥 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교육국장

